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분	계	보도내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10	.	.	.	10
신문	10	.	.	.	10
TV(방송)
기타

언론 보도 사항 목차

■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을 고려한 소방전술평가 실시	저널25방송	·	1
2	화성소방서, 외근부서 소방공무원 대상 '소방전술평가' 실시	화성뉴스	·	2
3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도민일보	·	3
4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선경일보	·	4
5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일간경기	·	5
6	화성시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화성뉴스	·	6
7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화성 인터넷신문	·	7
8	“화성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경기신문	·	8
9	“화성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경기신문	011	9
10	긍정적인 코로나 119 극복	경인매일	005	10

화성소방서,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을 고려한 소방전술평가 실시

이충하 기자 | 승인 2020.06.25 20:04



화성소방서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외근부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전의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개인의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 위주였다면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현장대응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특수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필기평가 및 팀 단위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대상이 300여 명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장 분리,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감염방지도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화성소방서장(조창래)은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벗어난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전술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외근부서 소방공무원 대상 '소방전술평가' 실시 화성뉴스

2020.06.26 08:22 입력



화성소방서는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외근부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

이전의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개인의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 위주였다면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현장대응역량 향상 및 안전 사고 방지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특수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필기평가 및 팀 단위 실기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대상이 300여 명인 점을 고려해 평가장 분리,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감염방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벗어난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전술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6.25 12:36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23일 화요일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감사 편지에서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코로나19 생활안전수칙을 어린이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을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고 감사를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2020-06-25 16:1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23일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감사 편지에서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 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등 코로나19 생활 안전수칙을 어린이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들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고 감사를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갑 기자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김영진 기자 | 승인 2020.06.25 11:18 | 댓글 0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사진=화성소방서)

화성소방서는 23일 화요일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고 감사를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도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 편지 전달

2020.06.26 00:69 일렉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23일 향남읍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 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코로나19 생활안전수칙을 어린이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들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 도이초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6/25 (13:48)



○ 화성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화성소방서에 응급구조원 손편지를 보냈다.

【화성인터넷신문】이영애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종래)는 23일 화요일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대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감사 편지에서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길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안전수칙을 어린이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 화성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달한 손편지를 화성소방서 내부에 전시했다.

또한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을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은 미소를 띄우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고 감사를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머뭇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화성소방서에 손편지 도착
도이초 1학년 학생 33명이 써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등록 2020.06.26 04:00:00 11면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화성소방서가 최근 33통의 손 편지를 전달받았다.

손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화성시 향남읍 소재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이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빠들빠들 써 내려간 이 편지에는 코로나 감염증 대응과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고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방관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다. 고생하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들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받아 본 화성소방서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

화성소방서에 손편지 도착
도이초 1학년생 33명이 써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화성소방서가 최근 33통의 손 편지를 전달받았다.

손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바로 화성시 향남읍 소재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이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삐뚤삐뚤 써 내려간 이 편지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고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방관들이 많

이 힘들다는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다. 고생하는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들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받아 본 화성소방서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공정적인 코로나 119 극복

화성 도이초등학교 학생들, 화성소방서에 감사 손편지 전달

화성소방서는 지난 23일 화요일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도이초등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뉴스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성 가득한 그림과 글을 담은 손편지를 화성소방서에 전달했다.

감사 편지에서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더위에 힘내세요 저도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을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

기등 코로나19 생활안전수칙을 어린이들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영웅님들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큰 감사와 응원을 받아 감동적이고 더욱 힘이 난다.”고 감사를 전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최규복기자
news114@kmaeil.com